

현대문명 안에서 불교 역할은?

동방문화대학원대, 6월 3일 첫 국제학술대회

'불교와 현대문명' 주제로

현대 문명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명한 세미나가 열린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는 6월 3일 학내 호운관에서 '불교 현대문명'을 주제로 첫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세미나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박수호 덕성여대 연구원의 '융합사회의 도래와 불교의 대응전략',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의 '자본주의와 한국 불교의 만남, 그 화해와 갈등의 전망에 대해', 신승철 불레스병원장의 '뇌과학과 불교'가 각각 발표된다.

2부는 해외 활동 학자들이 참여한다. 코스트 캐틀라이나네 성원 스님은 'Groupings of Korean Buddhist movies'를 통해 한국불교 영화를 분석

한다.

데니스 미국 국제기독교대 교수는 일본에 불교를 전한 쇼토쿠 태자가 위키 피디아, 블로그,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그린 코스트 캐틀라이나네 교수는 일본 만화영화의 아버지 테스카 오사무가 작품에서 불타를 어떻게 형상화하는지를 분석한다.

차차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장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불교의 이론을 현대사회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미디어 시대라고 지칭되는 현대 한국사회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대중들과 융합할 수 있는가를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개정 종교 공교육, 학생 자율성 높여야”

종교교육학회, '2015 개정 종교교육과정' 주제 학술대회

지난해 9월 고시된 새로운 교육과정 내 종교교육의 내용을 짚고 종교교육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최준규)는 5월 20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성의회관 708호에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종교교육'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종교학 교육과정의 변화와 과제를 분석하고 불교·개신교·가톨릭 등 각 종교교육 현황을 살폈다.

고병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교학 교육과정의 개정 흐름과 방향'에서 새로운 종교교육 체계를 분석했다.

고 연구원은 새로운 종교교육의 특징을 '성찰'에 있다고 봤다. 교사가 교육을 통해 '심어주는 역량'이 아닌 학생 스스로 성찰을 통해 '스스로 만드는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연구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자주 △창의 △교양 △더불어 사는 등 4가지 인간상과 6가지 핵심역량을 함양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그동안 역량이라는 표현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종교학 교육과정을 포함한 개별 교과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을 별도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종교교육에서는 학생을 특정 방향을 가진 신앙인, 도덕인, 시민으

로 만들어 내려는 의도는 배제된다"면서 "성찰적 종교교육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격체'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연구원은 새로운 종교학 교육과정이 종교 간, 다른 영역의 소통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면 여러 실천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종교 교사들의 연구모임, 연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정 교육과정 창의성 중시
특정종교 교리 학습은 지양
듀이의 종교관 현실적 대안
내적 경험 중시 수행 바탕
불교교육은 미래 교육 가치**

김귀성 원광대 교수는 발표 논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종교학 교과 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종교학 교육의 과제를 살폈다.

김 교수는 향후 과제로 △종교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성 △관련 법규 및 교과서 개발 · 교원 양성 △교육과정 체제의 연구 ·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종교 교과의 특성을 고려



동국대부속중학교 학생들이 연등을 만들고 있다. 앞으로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배우는 것에서 학생 스스로 성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하면서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장 교사 외에도 관련 학계, 종교계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재 개발이 이뤄지도록 행정·재정적인 지원체제의 구축, 교과서의 공동개발 및 활용 등을 고려해

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송곤(前 동국대 강사)씨는 불교교육의 영향과 과제를 분석했다. 이 씨는 '듀이의 종교관 측면에서 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불교 종교교육의 과제'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타일러의 교육과정 체계로 구성돼 있으나 개정 종교교육과정의 취지와 방향을 보면 타일러의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학습자의 내적 성찰에 중점을 두지 않고 교과과정이 운영되는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씨는 미국 교육학자 듀이의

종교관을 종교교육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봤다. 한 예로 듀이는 비이분법의 토대 위에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고 삶의 모든 경험이 종교라고 바라보고 있는 점을 제시했다.

이 씨는 "듀이의 견해는 종교교육의 현장에서 삶과 분리되지 않는 종교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토대가 가능하다"면서 "종교를 성(聖)의 영역이 아닌 삶의 경험선상에서 보게 함으로서 종교교과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이분법적 사상의 바탕 위에서 창조적인 '내적 경험'인 수행을 통해 불교적 인격을 성취하는 것이 불교교육"이라면서 "불교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면 21세기 미래교육의 가치로서 지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장안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문화재 된다

부산시 지정문화재 지정예고

부산 장안사(주지 정오)의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長安寺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가 부산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예고됐다.

부산시는 5월 18일 '장안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를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예고된 장안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의의를 먼저 말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부산시는 "장안사 예수시왕생칠재의 찬요는 조선중기의 예수재를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라면서 "입진왜란 이전에 간행되었으며 전체 18종의 판본들 중 초기의 것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성민 기자

감동적 법회위한 설법론

불광연구원, 6월 4일 학술연찬회

감동적인 법회를 위한 설법 방법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감동적 법회를 위한 설법의 구성과 내용'을 주제로 제28차 불속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조준호 고려대 연구교수가 '부처님의 설법 원리와 방법-초기 경전을 중심으로', 남수영 동

국대 외래교수가 '대승경전에 나타난 설법의 내용과 방법',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효과적 메시지 전달과 청중의 몰입을 위한 설법방법론', 민영록 한국스피치&리더십센터 원장이 '설법자와 청법자의 특성에 따른 설법 방법 모색'을 발표한다. 이어 박상건 한국잡지학회장(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과 이은자 숙명여대 리더십교양교육원 조교수가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해외 불교학 명사들 대거 방한 강의

동국대 불교학술원

베이징대·도쿄대 교수 초청 불교학 협동강의 3주간 진행

와 현황, 향후 전망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6월 3일에는 미노와 겐로 도쿄대 인도철학불교학과 교수가 아스카(飛鳥)와 나라(奈良)시대 불교에 대해 강의한다.

김종욱 동국대 한국불교융합학과장은 "지난 4월 베이징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2회 동아시아 4개 대학 불교학 국제학술대회'의 연장선에 있는 학술행사로 볼 수 있다"며 "한국불교학의 수준을 높이고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불교학 연구와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유명 불교 중관학자 초청해 24~25일 양일 간 강연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학한국(HK)연구센터는 해외 저명학자들을 대거 초청해 '중관'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대승불교 중관사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강의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금강대 사이버 강의실 및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초청 학자로는 템플대학교의 덕월스 더글라스(Duckworth Douglas) 교수, 네브라스카-린컨 대학교의 야로슬라브 코마로프스키(Yaroslav Komarovski) 교수, 윌리엄 앤 매리 대

학의 케빈 보스(Kevin Vose) 교수, 리처드 스토크턴 대학교의 이종복 교수, 다이쇼대학교의 나가시마 준도 교수가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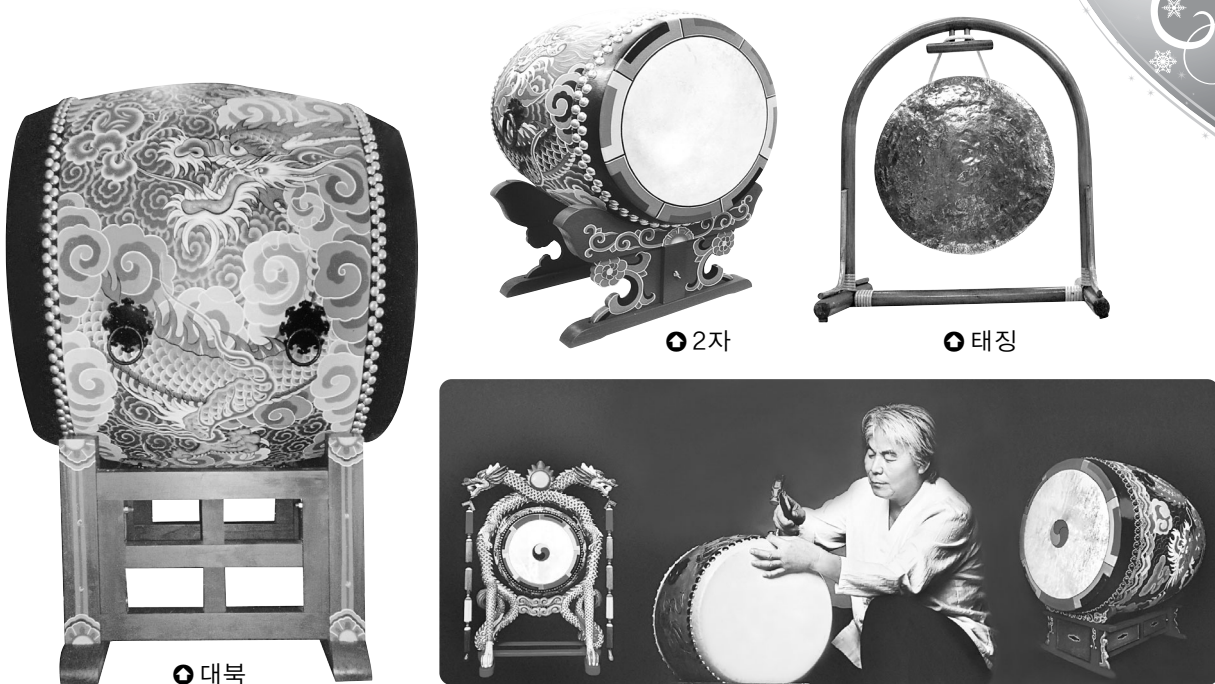
덕월스 더글라스 교수는 '티베트의 중관사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야로슬라브 코마로프스키는 '까과' 학생들이 중관학적 사유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케빈 보스 교수는 초기 티베트 불교의 중관학과를 조명하며, 이종복 교수는 티베트의 겐룩학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깨달음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이번 강연을 통해 연구소의 아젠다인 '불교교전어, 고전문헌의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 연구' 중 대승 불교의 핵심인 중관사상 연구를 한층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북 · 범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제작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백초울력학당 백초귀장술 공개강의 창시자 백초스님 직강

- ① 역학을 배우고 상담 업을 시작하시려는 분!(꼭 필요함)
- ② 역학공부 안하고 신도가 물을 때 옳은 답변 쉽게 하고 싶으신 스님 분! (조상 뽕기 쉬워서 천도재 집전 불사가 쉽습니다.)
- ③ 영험하고 신통한, 남다른 상담을 하고 싶은 분!
- ④ 신 받았는데 아무 것도 점사가 안 떠오르는 신제자 분들!

확실하고 & 신통한 비법 전수해드립니다. 적중률 95%

- 백초귀장술 책 이외의 특수비법과 실천노하우 전수 위주로 3개월간 주 1회씩 진행됩니다. 강의 듣고 나면 바로 활용 가능함.
- 한문 몰라도 되고, 역학 몰라도 쉽게 왜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수강료 : 1일 일일만원, 10만원 농협 302-4233-7099-41(김경석)

【서울 개강】 5월 29일 일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강의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2-50 유빌딩 301호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7번출구 3분거리 / 2호선 10번 출구 10분거리입니다.

【부산 개강】 5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강의 장소 : 부산 동구 중앙대로(부산역 광장 맞은편 엔제리너스 4층)

백초울력학당 연락처 010-3813-4443, 010-4233-7099
Cafe.naver.com / 백초울력학당